

사사기 11:37-38 번역 연구

— ‘치녀로 죽음’을 중심으로 —

장석정*

1. 서론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지난하고 고된 가시밭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기꺼이 뛰어드는 이유는 교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성서가 그 본래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말 성경이 1911년에 처음 완역되어 『성경전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을 때, 그 감격이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값진 것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1938년에 이 성경이 수정 번역되어 『성경개역』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고 최종적으로 1998년에 『개역개정』이 완성되어서 현재 사용 중이다.

그런데 흥미로우면서도 우려가 되는 것은 최초의 번역 성경에는 별 문제가 없이 번역된 부분이 오히려 1938년에 수정 번역되면서 이해하기 힘들게 번역되었고 그 이후에 아무런 수정이 없이 오늘날까지 답습되고 있는 본문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본문들 중에서 본 개정 제안에서는 사사기 11:37-38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구절의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 『개역개정』에서는 “죽음을”이라는 표현을 본문보다 작게 기록하여 원문에 없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구약학 교수. schang15@cku.ac.kr.

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2. 본론

잘 알려져 있듯이, 사사기 11:29-40에 기록된 ‘입다의 서원 이야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난해한 본문들 중의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입다가 정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는가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활발하게 되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다. 스톤(K. Stone)도 최근의 논문에서 입다가 그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고,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시지 않았으며, 이를 분명하게 용납하시지도 않았으나 이것을 비난하시지도 않고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막지도 않으셨다고 본다.¹⁾

스미스(M. Smith)는 저자가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비록 이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는 입다가 그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그의 딸을 평생 성막에서 처녀로 봉사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²⁾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입다가 딸에게 서원한 대로 행했다고 기록된 내용 다음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평생 처녀로 지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시에 저자가 “입다는 그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입다의 딸의 운명을 기술하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삭의 경우처럼(창 22장) 대체할 동물을 번제로 드렸을 가능성을 남겨두는 이런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³⁾

『개역개정』의 번역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MT(마소라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37절과 38절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는 번역은 우리말 최초

1) K. Stone, “Animal Difference, Sexual Difference, and the Daughter of Jephthah”, *Biblical Interpretation* 24 (2016), 4.

2) 이런 주장을 한 학자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라. M. J. Smith, “The Failure of the Family in Judges, Part 1: Jephthah”, *Bibliotheca Sacra* 162 (2005), 296, 각주 43.

3) 베그(C. Begg)도 이 표현의 모호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이 표현이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는 “입다는 그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C. Begg, “The Josephan Judge Jephthah”, *SJOT* 20 (2006), 176.

4) 『개역개정』의 인쇄판에는 37-38절에서 각각 ‘죽음을’이라는 단어를 작은 글씨로 삽입해

의 번역 성경인 『성경전서』(1911)에는 “죽음”이라는 단어 없이 MT의 본문대로 번역했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개역』(1938)으로 번역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첨가했던 것이다. 참고로 대부분의 영어성경들은 MT에 따라 번역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이 번역했다. 물론 매우 드물게 GNT 번역처럼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번역한 성경도 있기는 하다.⁵⁾ 그러나 GNT는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에 의해서 처음 출간된 것이 1976년이기 때문에, 1938년에 나온 『성경개역』의 번역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성경전서』	종신토록 <u>처녀됨</u> 을 인하여 슬피 울겠느이다 (37절)
	종신토록 <u>처녀됨</u> 을 인하여 슬피 울고 (38절)
『성경개역』	<u>처녀로 죽음</u> 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37)
	<u>처녀로 죽음</u> 을 인하여 애곡하고 (38)
『개역개정』	<u>처녀로 죽음</u> 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37)
	<u>처녀로 죽음</u> 을 인하여 애곡하고 (38)
KJV	bewail my <u>virginity</u> (37)
	bewailed her <u>virginity</u> (38)
RV	bewail my <u>virginity</u> (37)
	bewailed her <u>virginity</u> (38)
NRS	bewail my <u>virginity</u> (37)
	bewailed her <u>virginity</u> (38)
NJPS	bewail my <u>maidenhood</u> (37)
	bewailed her <u>maidenhood</u> (38)
GNB	grieve that I must <u>die</u> a virgin (37)
	grieved because she was going to <u>die</u> unmarried (38)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개역개정』의 번역은 “죽음”이라는 단어의 첨가로 인해 마치 입다의 딸이 번제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해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첨가는 그 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런 『개역개정』의 번역은 하루 속히 『성경전서』의 번역대로 “처녀됨을 인하여”의 맥락으로 수정되어서 이 본문의 본래적인 모호성이 그대로 번역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뢰머(T. Römer)는 입다의 딸이 죽음을 당했는지 아니면 평생 여호와께 헌

서 MT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는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의 『개역개정』은 글씨 크기에 차이가 없이 그대로 독자들에게 보인다.

5) GNB는 39절에서도 “she died still a virgin”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입다의 딸이 죽었음을 강조한다.

실했든지, 그녀는 ‘처녀’로 사라진 것이며, 그녀의 가족의 족보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⁶⁾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지 입다는 후손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 것이며, 그 자신이 스스로의 족보에 죽음을 내린 셈이라고 본다.⁷⁾

몇몇 학자들은 중세의 유대인 학자였던 데이비드 김히(D. Kimhi, 1160-1235)의 견해를 따르는데, 입다는 그의 딸을 번제로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신제사는 이스라엘에서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그의 서원을 글자 그대로 수행하는 대신, 입다는 딸을 평생 처녀로 지내도록 했다는 것이다.⁸⁾ 이것은 입다의 딸이 그녀의 처녀성에 대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두 달의 시간을 달라는 내용(삿 11:37)에서와 번제를 드렸다는 정확한 기록이 성서에 없다는 사실에서 암시된다(11:39). 따라서 사사기 11:40에서 언급된 매년 4일씩 애곡하는 관습은 딸의 죽음에 대한 애곡이 아니라, 여자들이 입다의 딸이 평생 처녀로 지냈던 것을 가엾게 여기는 기간으로 지킨 것이었다. 이렇게 평생 처녀로 지내는 것은 결국 죽은 것과 같은 삶이고 여성으로부터 결혼과 출산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⁹⁾ 이런 해석은 원래 MT의 내용을 설득력 있게 해석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며, 우리말 성경 중에서 현재 대부분의 교회가 사용하는 『개역개정』보다는, 『성경전서』가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경전서』가 MT에서 직접 번역된 것이 아니라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보다 먼저 번역된 성경들의 번역 내용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전서』(1911)가 번역될 당시에 이미 출간되어 있었던 일본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들의 번역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2.1. 일본어 성경

<메이지역>(1887)

(11:37) 女またその父にいひけるはねがはくは此事をわれに允せずな
 はち二月の間我をゆるし我をしてわが友等とともに往て山にくだりて
 わが處女たることを歎かしめよと

(11:38) エフタすなはち往けといひて之を二月のあひだ出し遣ぬ女そ
 の友等とともに往き山の上にておのれの處女たるを歎きしが

6) T. Römer, “Why Would the Deuteronomist Tell about the Sacrifice of Jephthah’s Daughter?” *JSOT* 77 (1998), 35.

7) M. J. Smith, “The Failure of the Family in Judges”, 296.

8) M. A. Beavis, “A Daughter in Israel: Celebrating Bat-Jephthah (Judg. 11.39d-40)”, *FT* 13:1 (2004), 15.

9) M. A. Beavis, “A Daughter in Israel”, 16.

<메이지역>은 우리말 성경과는 다르게 “處女”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죽음”을 뜻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경전서』의 번역보다 일찍 번역된 <메이지역>의 번역도 MT와 같은 맥락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중국어 성경들

『神天聖書經文』(1823) (<모리슨역>) (Morrison's Version)

其又謂父親曰、願留我兩個月、致我及我女伴、同在各山往上往下而哀哭我之為閨女、求準行如是與我。([11:37] 或曰我之不出嫁)

耶弗大曰、爾可去、而其遣他去、等兩個月而他及女伴、同往山上哀哭他之不出嫁。(Weep together in the mountain for not marrying him)

『文理委辦譯本經文』(1856) (<대표역본>)

又謂其父曰、請呈一辭、既終身不字、請假我二月、偕我同儕、登山哀哭。(With my comrades, climb the mountain and weep)

曰去。遂遣之、以二月為期、與其同儕、為終身不字之故、陟山哀哭。

아예 “處女”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애곡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했다.

『馬殊曼譯本經文』(1822) (<마쉬만역>) (Marshman's Version)

女又謂父曰。許我作此情。許我自在兩個月。俾我上落山陵。我偕吾侶而悲吾童身也。(I accompany my partner and mourn for my boyhood)

父曰。去。父令女行開二個月。女同厥侶。往而悲其童身于山上。

<마쉬만역>은 성별 면에서 독특하게도 남성을 부각시켜서 번역하고 있다.

『裨治文譯本』(1864) (<브리지만-퀸벳슨역>)(Bridgman-Cullbertson's Version)

又謂其父曰、有一事、願行之於我、容我兩月、俾我及我女伴、可往來於山、哀哭我之為處子。(weep for my virginity)

耶弗大曰、爾往哉、遂遣之往、兩月為期、彼與女伴同往、在山上哀哭其為處子。(Weeping on the mountain for being a virgin)

『北京官話譯本經文』(1875)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

又對他父說、有一件事求你應允我、姑且容我兩月、我和我的女伴上山、哀哭我終為處子。(Weep that I will end up being a virgin)

耶弗大說、你可以去。就容他去兩個月、他就和他的女伴去了、在山上為他終為處子哀哭。

『施約瑟淺文理譯本經文』(1902)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

又謂父曰、有一事求父允之、姑容我兩月、我與我女伴適於山、哀哭我終身為處子、(Weep that I am a virgin all my life)

曰、可去、遂遣之往、兩月為期、與其女伴同往、在山上因終身為處子而哀哭、

이상 살펴본 모든 중국어 성경에는 『성경개역』이 첨가한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브리지만-컬벗슨역>과 <쉐레쉐브스키 관화역본>, 그리고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이 MT의 기록과 동일하게 “處子”라고 번역하고 있고, 나머지 성경들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處子”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다. 특히 <대표역본>은 아예 “處子” 자체를 빼고, 그저 애곡하다는 의미만을 번역했으며, <마쉬만역>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말 성경 『성경전서』가 최초로 번역한 “쳐녀됨”이 MT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들의 번역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중국어 성경들에 대한 더욱 상세한 분석이 논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3. 칠십인역(LXX)

(11:37) και ἡδε εἶπεν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αὐτῆς ποιησάτω διὴ ὁ πατήρ μου τὸν λόγον τοῦτον ἕασόν με δύο μῆνας, καὶ πορεύσομαι καὶ καταβήσομαι ἐπὶ τὰ ὄρη καὶ κλαύσομαι ἐπὶ τὰ παρθενία μου, ἐγὼ εἶμι καὶ αἱ συνεταιρίδες μου.

(And she said to her father, Let my father now do this thing: let me alone for two months, and I will go up and down on the mountains, and I will bewail my virginity, I and my companions.)

(11:38) καὶ εἶπεν πορεύου καὶ ἀπέστειλεν αὐτὴν δύο μῆνας. καὶ ἐπορεύθη, αὐτὴ καὶ αἱ συνεταιρίδες αὐτῆς, καὶ ἔκλαυσεν ἐπὶ τὰ παρθένια αὐτῆς ἐπὶ τὰ ὄρη.

(And he said, Go: and he sent her away for two months; and she went, and her companions, and she bewailed her virginity on the mountains.)

칠십인역(LXX)의 번역도 역시 이미 살펴본 성경들과 같은 맥락으로 “처녀 됨”(παρθένια)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MT와 같은 내용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분석 연구 결과로 보면, 사사기 11:37-38에 나오는 『성경개역』(1938)의 “처녀로 죽음”이라는 번역은 최초의 한글성경인 『성경전서』(1911)의 번역 “처녀됨”이라는 번역을 수정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다. 『성경개역』 이후로 우리말 성경은 오늘날 사용되는 『개역개정』(1998)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처녀로 죽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경우 ‘입다는 그의 딸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입다의 딸은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MT에는 물론이고, 칠십인역, 대부분의 영어성경,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37-38절을 번역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죽음”을 넣어서 번역함으로써,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러지지 않고, 동물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그 딸은 평생 수절하면서 살아갔으리라는 해석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이렇게 대략적인 관찰 결과를 토대로 보아도, 37-38절의 번역은 처음에 번역된 『성경전서』의 번역으로 복구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빼고, “처녀됨”이라고만 번역하는 것이 MT의 저본(Vorlage)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번역된다면 입다의 딸의 죽음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입다의 서원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개역개정』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는 번역은 “처녀됨을 인하여”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 제안의 경우, 아직은 다양한 성경들에 대한 비교 관찰 수준에 그친 것이어서, 각 성경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요구되고, 더욱 다양한 해석사에 대한 부분도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 일자: 2022년 5월 27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5일)